■ 3대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은…

공심(公心)·원력(願力) 날개 삼아 화합·소통하는 수행자

안암에 상공한 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당선자 자승스님은 오랫동안 중앙종회의원 소임을 맡으며 입법원장을 맡아왔고, 33대 총무원장으로 선서 봉행기다린 면모를 두루 갖췄다.

10일 오후 제34대 총무원장 당선 직후 조계사 대웅전을 찾아 그불(佛)佛)의 예를 갖춘 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당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자승스님.

김형주 기자
coolpo@buddhist.com

자승스님은 1954년생으로 전 총무원장 정대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72년 해인사에서 지관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수지하고 1974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이후 동화사, 봉암사 선원 등에서 수선 안거를 하고, 수원포교원, 삼막사, 연주암 주지 등을 역임했다.

스님은 1986년 종무원 교구사 창립 사무소로 총무원 재무부장, 총무부장 등을 역임하고, 제10대, 12대, 13대, 14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활발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14대 중앙종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맡기도 했다.

스님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은평불교문화진흥원 이사장을 맡으며 전법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은평불교문화진흥원에는 대웅전 불교원석, 불교단체,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장학금과 생활격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매년 개최하는 '나눔다 축제'는 불교를 대표하는 3대 축제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전국 청소년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불교교리경시대회에는 해마다 참가자들이 늘어, 경시대회 가운데도 위상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자승스님은 지난 2000년 제30대 총무원장에 취임해 많은 종단 발전과 변화를 일궈냈다. '지성과 애사 운동'을 통해 종단의 제도와 의식개혁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애신법연'이라 일컬어지는 사찰예산의 계법과 사찰운영위원회법 등이 제·개정돼 사찰운영과 예산의 투명화와 공명선거의 기틀을 마련했다. 승가청규 제정을 통해 승단의 의식변화를 주도하기도 했다. 물론 함께도 따랐다. 재신임사는 특히 대중적인 호응을 크게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자평도 나왔다.

반면 주지안사고과제, 토지제보금 환원, 해외특별교구 신설, 사후유언장 작성 등의 제도도 자승스님 재임기간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런 제도들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종단의 행정을 체계화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직할교구 공동 주지 인사고과제도는 사찰의 보교, 복지 등을 독려하는 매개가 됐고, 교구본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33대 집행부 마끝며
지성과 애신실사 통해
제도·의식개혁 도모

300년만에 승가교육 개편
종단 첫 승려노후복지 등
추진력 돋보여

승가교육체계 개편은 '300년만의 개혁' 이라 평가받기도 했다. 기본교육기관이 현대화와 교재의 한글화를 추진하고 표준교육과정을 도입했다. 전문교육기관의 강화와 연수교육의 다양화도 추진됐다. 뿐만 아니라, 스님들의 수행환경 개선 조성을 위해 종단 역사상 처음으로 승려노후복지제도를 시행했다. 보건의료, 수행전념 수행지주보아로 나눠 가장 편리한 65세 이상 소임이 없는 스님들에게 의료비와 요양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구본사와 승려노후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4월부터는 소매라도 수행연금을 지급해려고 준비 중이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보살행 실천은 불교의 사회적 외상을 높이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자승스님은 30대 총무원장 취임 직후 첫 방문지로 음산함사 현장을 찾았다. 유족들을 위로한 것에 그치지 않고, 천불사원이 이웃들 수 있게 34층이 넘는 시간 동안 관심을 갖고 지원해왔다. 이밖에 방음자 해고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양장단. 이어의 국정조사 약속을 끝이냈 것이다, 종단 내 퇴촌로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무차대회를 개최했으며, 해고노동자와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상담을 진행, 약자에 대한 배려를 이어갔다.

'만국불교 세계화' 역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뉴욕, 파리, 시드니 등 아메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등에 만국불교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알렸다. 계다가 미국과 호주에는 해외특별교구 해외연락사무소를 개설해 종단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최근 한국불교 근현대 역사상 최대불사로 평가받는 '조계사 일대 역사문화관광자구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것 역시 두드러진 성과다. 통합된 이후 최대 규모의 불사로 꼽히는 총본산 성역화 사업은 가히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조계사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제외한 견지동 45번지 일대에 10~27층짜리 공원을 조성하고, 템플스테이체험관과 한국불교문화산업이 집약돼 있는 아케이드, 대합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성역화를 통해 자승스님은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과 여러분들이 방문해서 1700년 한국불교의 정수를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이현경 기자 ennaido@buddhist.com

교구중심제로 지방분권화 실현

■ 종책스로 본 향후 종단운영방향

34대 총무원장 선거기간 자승스님은 종단운영 8대 기조와 13대 분야별 종책을 제안했다. 우선 8대 기조는 △교구중심제 실현과 신도시 포교 △대중공의와 신개념 종무행정, 비구니 스님 권익향상 △수행종풍 진작 △종본산 성역화 완수 △재정기반 구축, 승가복지 안정 △승가교육 및 포교역신 △불교문화 21세기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방전 △종단의 사회적 역할 강화 등이다.

지난 임기 동안 종무행정 체계화와 서 전문력으로 대응할 태세도 갖춘다. 우선 신도시와 인구밀집 지역의 종교쉬움 확보하고 기정사항을 설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불교교재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광역시급 대도시에 공동사무소를 설치해 도심포교를 주도해도록 할 방침이다.

'신도시 포교' 적극 대응
비구니 참종권 확대

막자위한 종단활동 강화

종단재정자립 방안 모색
승가복지제도 안착 노력

▶ 종단운영 8대 기조

△교구중심제 실현과 신도시 포교
△대중공의와 신개념 종무행정, 비구니 스님 권익향상
△수행종풍 진작
△종본산 성역화 완수
△재정기반 구축, 승가복지 안정
△승가교육 및 포교혁신
△불교문화 21세기 신(新)성장동력으로 육성방전
△종단의 사회적 역할 강화

주준위 이야길 수 있게 됐다. 종단운 물론 출퇴, 분사, 선원 등에서 재해적인 수행결사를 진행, 정정수행 가 뜻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은 물론 종단 세신위원회가 1년간의 노력 끝에 제정한 정규도, 현대에 맞게 제도화 해 명심정립 전망하다. 장계제도도 달라진다. 스님들이 원원과 자승을 할 수 있는 장원원 건립은 물론, 호법부에 출원 출신 인사를 배치하고 호법부장은 종립학교 격금학인 인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수행풍토 진작을 위한 다양한 종책이 준비되고 있다. '선원지원특별위원회' 를 설립해 선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좌 스님들에게는 재정, 복지 지원을 시작한다.

승려노후복지는 승려복지제도로 원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34대 집행부는 현재 승려노후복지 대상은 만56세 무소임자 스님으로 규정됐지만 이를 원파 확대해 승려복지 제도로 확대한다. 복지제도가 필요한 무소속 무소임자 스님으로 대상을 넓혀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연금, 의료, 주거 외에도 장례를 포함시켜 다비장사의 관리 지원까지 종단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이다. 또 교구와 연계해 교구별 승려복지회를 설립하고 교구에산과 인력, 행정적 지원을 반영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종단 수익의 안정화 방안도 모색해나간다. 예산 확대방안을 찾아내 TFT를 구성해 기틀이 서울대교구 산하의 사업법인을 벤치마킹해 종단재정자립을 위한 방법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수익법인 (가칭) '보다드림' 설립을 통해 시장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브랜드화해 시장 유통도지를 대량공급, 수익창, 상품라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시민과 약자를 위한 종단다 활동도 더 강화될 것이다. 종단연 노동위원회 외에 사회의제를 담당할 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원력위원회를 가칭 화쟁분리소로 격상시켜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불교시민단체와 지원하대, 남북교류협력사업 등도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임기 동안 추진해온 불교관련 제 법령 개정도 꾸준히 이어진다. 전통사찰 미등기 건축물 양성화 및 이행강제금 면제, 사찰 원유 국공유지 불하 및 원용료 면제, 전통사찰 국립법원 중 예외조항 신설 등을 추진해갈 전망이다.

이현경 기자 ennaido@buddhist.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봉은사
BONG EUN SA

| 서울 강남구 삼성동 73번지 | 02)3218-4800 | www.bongeunsa.org